

# 미중 갈등과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2023.11

# 〈목 차〉

## I. 머리 말

## II. 미중 관계의 발전

1.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 배경
2. 미중 경제관계의 특징

## III. 미중 갈등과 그 영향

1. 미중 불균등 발전과 상호의존성의 균열
2. 위기에 대한 미중의 대응
3. 세계 경제질서에 끼칠 영향

## IV. 미중 관계 이데올로기들과 소결

1. 미중관계 이데올로기들
2. 소결

# I. 머리 말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은 1991년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생각. 1991년은 한 시기가 끝나는 종착점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기가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했음. 그 무렵부터 중국(스스로 시장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는)이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참여
-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 세계시장은 이전 시기에 비해 폭이 훨씬 넓어졌고 깊이도 더욱 깊어짐. 중국의 본격적인 세계시장 참여는 세계경제의 진정한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계기 제공(생산의 세계화)
-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글로벌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대규모 시장, 과잉 자본, 선진 기술을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영 체제를 발전시킴.

- 세계시장으로 공급하는 중국의 상품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 되는 모습 등장
- 이를 근거로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주요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자산 계층에 유리한 금융정책을 펼 수 있었고 그 결과 금융자산의 급속한 팽창으로 표현되는 금융화가 크게 진전(금융의 세계화)
-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참여한 중국은 국가 주도로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본, 기술, 지식을 숙련도 높은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시켜 세계의 공장 자리를 확실하게 굳힘.
- 중국은 세계시장 편입 이후 과거 일본이나 동아시아에 버금가는 경제 성장세 지속. 현재 중국의 명목 GDP는 미국의 70% 수준

- 특기할만한 점은 중국 경제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와 달리 종속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발전을 이룩한 사실. 중국은 경제정책을 펼 때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했고, 더욱이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억압정책을 활용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중국을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른 길로 가도록 이끌었음.
- 미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거기에서 얻는 이익도 컸기 때문에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
- 그러나 미중 관계는 처음부터 모순을 내포. 첫째, 글로벌 불균형으로 표현되는 두 나라 사이 거시경제 관계 안정성이 문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지속으로 달러 발행량이 늘어날 경우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
- 둘째, 미국과 중국의 발전 속도가 불균등하다는 사실. 중국으로서는 세계시장 참여가 생산력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

- 중국은 세계시장 참여를 통해 자국 노동력의 숙련도(노동 생산성)를 높일 수 있었고 기술력 면에서도 많은 부문에서 미국의 수준을 따라잡을 정도에 이름.
- 발전 속도의 불균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위계가 바뀌면 미국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됨. 실제로 중국의 생산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
- 미국은 과잉 달러와 저임금 노동력을 결합하는 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중국과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첨단 기술산업을 떨쳐내는 전략을 펴기 시작
-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관여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이행

- 미국의 전략 변화는 세계경제 질서에 큰 변화와 균열을 가져올 것.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 이후 글로벌 생산의 분업 방식으로 굳은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서도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
- 여태껏 이어져 온 세계적인 저물가 상황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 그동안 미중 관계의 발전 속에서 금융의 성장을 불러왔던 조건에서도 변화가 생김에 따라 금융의 모습도 달라질 것
- 그렇다면 상호 의존적인 미중 관계가 갑자기 위기에 빠져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주류의 설명은 국제정치학의 패권 전이 이론에 바탕을 둔 투키디데스 함정론, 신냉전론, 그리고 현실주의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
- 미중 갈등의 좀 더 본질적인 동력은 자본들 사이의 경쟁, 이윤율로 표현되는 자본과 노동 관계,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상대적인 생산력 수준 등

- 미중 관계의 긴장이 높아진 데에는 무엇보다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인 격차 변동이라는 현상. 세계시장의 불균등 발전과 그에 따른 위계 변화의 정치적인 표현이 미중의 대립으로 표현
- 국내 분배 관계의 악화 때문에 생긴 계급 갈등은 이를 대외 정책을 통해 **수출**해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상황이 대외 긴장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
- 미중 대립의 이면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갈등. 미중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남. 자본 사이 대립이 일정 부분 국가들 사이의 대립으로 표현
- 이 글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 미국 중심의 주류 시각과는 달리 미중 갈등을 이윤율로 표현되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들 사이의 경쟁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



## II. 미중 관계의 발전

### 1.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 배경

- 스티븐 로치는 미중 관계의 발전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주체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외국의 자본, 기술, 지식을 필요로 했던 중국 쪽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
- 미중 관계의 발전에는 세계시장의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던 중국의 의도도 작용했을 터이지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질서에 중국이 참여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미국 기업의 이해가 우선했다고 봐야 함.

##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 하락〉

- 이윤율의 하락하면 주요 자본주의 경제는 무역과 자본수출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이윤을 얻으려는 시도를 함. 마르크스는 대외 교역의 확대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윤율의 하락 경향을 상쇄하는 요인이라고 설명
- 미국의 이윤율 추이를 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 19.3%, 1970년대 15.4%, 1990년대 16.2%, 2000년 이후 20년 동안은 역사적 최저치인 14.3%
- 수익성이 떨어진 미국 기업들은 수익성 회복 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했음. 그 대상이 처음에는 동아시아 국가들,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
-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을 가진 자본투자 호조건의 국가. 1990년대 초반,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미국 대기업들의 로비 활동

## 〈항상적인 세계시장 과잉 달러의 존재〉

- 달러의 가치가 금으로 보장되지 않는 달러 체제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항상적으로 과잉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 불리한 국제수지를 긴축이 아니라 달러 발행량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미국의 예외적인 지위 때문
- 오늘날 경제적 제국주의가 가치를 수탈하는 네 가지 방식; 첫째, 직간접적인 외국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얻는 이익과 그 이익의 본국 송금, 둘째, 외채에 대한 이자 지급, 셋째, 국제 무역에 깃든 불평등한 교환, 넷째, 패권국의 화폐를 국제 화폐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인 시뇨리지
- 미국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수탈해 왔는데, 네 번째 방식을 통할 때 달러의 과잉 발행 현상이 나타나는 셈. 1971년 금-달러 교환 중지 선언으로 달러가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화폐로 변하면서 과잉 달러 문제는 더 심화

- 미국은 발행된 달러가 미국 밖에서 계속 유통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보유. 첫째, 유로달러 시장은 미국 바깥의 달러 유통 확대에 기여
- 둘째, 모든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 상품인 석유 거래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도록 하여 달러 지급수단과 거래 준비금에 대한 수요를 확대
- 셋째, 금융자산(부동산을 포함하여) 거래와 같은 가공자본 거래의 필요성을 창출
- 미국은 가공자본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자본, 금융, 외환시장 개방을 요구하여 관철
- 그밖에도 세계경제 성장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낸다는 사정

- 미국의 달러 패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향적으로 과잉 발행된 달러는 세계시장 곳곳에 축적. 문제는 이러한 달러와 달러로 표시된 자산이 가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 달러 자산은 팽창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본으로서 투자되어야 하고 이윤을 생산해야 함.
- 과잉의 달러가 생산적으로 투자되지 못하면 점진적으로 가치를 잃거나(인플레이션) 아니면 급격하게 가치를 잃는(금융위기) 형태로 발현. 따라서 과잉의 달러가 항상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여기저기를 누벼야 하는 것은 숙명
- 198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과잉 달러 문제는 더 커졌고 그 결과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자본의 요구도 그만큼 강해짐.
- 말하자면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과잉 달러의 요구에 들어맞는 측면이 있었던 것

## 2. 미중 경제 관계의 특징

- 첫째, 산업구조 면의 특징은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파악 가능.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자본이 새로운 이윤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과정을 여러 개로 나누고 그 나뉜 서로 다른 과정을 국제 노동분업 원리에 따라 서로 다른 나라에 배치함으로써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산업조직
-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계를 보여주는 스마일 곡선상에서 부가가치 분배 몫이 큰 부분은 주로 미국 기업들이 차지. 거꾸로 부가가치 분배 몫이 낮은 단순 제조와 조립 공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들에 배치
-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가 보여주는 미중 경제 관계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 중국 수출의 주요한 형태가 수입 원자재의 가공 형태를 갖는다는 점

- 이리하여 대체로 중국에 배분되는 이익의 비율은 매우 낮음.
- 포브스 글로벌과 세계무역기구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제조업 수출 3대 분야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 통신 장비의 경우 세계 수출 금액 비중은 중국이 33%, 미국이 6.3%, 분배된 이익의 몫은 중국이 5.5%, 미국은 61%,
- 의류와 직물의 경우에는 세계수출금액 비중은 중국이 36%, 미국이 2.1%이지만 분배된 이익의 몫은 중국이 8.4%, 미국은 22%. 화학과 제약의 경우 세계 수출금액 비중은 중국은 9.5%, 미국은 9.7%, 분배된 이익의 몫은 중국이 4.4%, 미국이 47%
- 셋째,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현상도 나타남. 이는 자연스런 결과인데, 미국의 과잉 달러와 기술을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형태로 미중 경제관계가 발전해 왔기 때문

- 넷째, 생산적인 활동과 비생산적인 활동 측면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제 관계의 특징; 중국에서는 생산적인 활동과 관련된 자본량 급증, 미국에서는 크게 감소. 세계의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 급증
- 다섯째, 미중 경제관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속성 측면의 특징; 미국에 대해 종속적인 형태의 발전 과정을 거친 라틴 아메리카와는 달리 중국은 그러한 종속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발전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
- 중국은 경제 개방 속도를 조심스럽게 조절했고 국유 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남겨놓음. 무엇보다 중국은 금융을 직접 통제하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기업 정책에 영향력을 끼침.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하는 것을 피하도록 함.



### III. 미중 갈등과 그 영향

#### 1. 미중 불균등 발전과 상호 의존성의 균열

##### 〈자본주의 국가의 무역 정책〉

- 세계시장은 국제 분업을 전제로 성립하며, 국제 무역은 그 국제 분업을 토대로 전개. 국제 무역이 진전하면 국민경제 내부의 분업도 더욱 촉진. 분업이 촉진되어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발전하면 자본의 운동은 더 큰 규모의 생산, 더 큰 규모의 시장을 요구
- 끊임없는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자본으로 하여금 다시 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도록 함. 이 외국시장에서도 국민경제 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 사이의 경쟁이 이뤄짐.
- 그러나 외국시장의 경쟁은 개별 자본들 사이의 경쟁과는 다른 특수성 가짐.

- 국민국가들의 평균적인 노동 숙련도는 나라마다 각기 다르고 평균적인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 거기에다 기업들이 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는 화폐들의 상대적인 가치 문제, 곧, 환율이 개입
- 세계시장에서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국민국가의 정책을 매개로 해서 이뤄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시장에서는 국가의 대외정책, 특히 무역정책이 중요한 역할
- 국가의 대외정책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논리를 반영하여 수립되고 집행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처럼 나타남. 그럼에도 대외정책의 본질이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 구조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 여러 자본 분파 사이의 이해가 다르다는 사실은 대외정책 수립에서 국가가 자율성을 가질 공간을 남김.

-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을 규정하는 요인은 국민경제 내부의 재생산 구조에서 나오는 요청과 세계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요청이 중첩되어 존재
- 무역정책에 한정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수단들을 보면, 관세, 비관세 장벽, 수출자율규제, 외환관리, 특정 산업이나 특정 상품의 수출에 대한 장려금 지급, 국내 가격과 세계 시장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제, 무역금융 등이 있음.
- 세계무역기구 자료에 따르면 보호주의 강화로 전 세계의 비관세 장벽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
- 비관세 조치 건수가 2005년에는 최소 1,953건, 2010년에는 3,651건, 2015년에는 4,167건, 그리고 2019년에는 최소 5,244건을 나타냄.

## 〈미국의 구체적인 대중정책〉

- 미중 대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트럼프 정권 이후의 구체적인 대중 정책을 보면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전통적인 무역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사용
- 1974년 통상법에 따른 세이프가드, 1962년의 통상확대법에 따른 안전보장조치를 근거로 관세 부과,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기초해서 추가 관세 대상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 외국투자 리스크 심사 현대화법(FIRRMA)에 기초한 외국 투자 심사 강화 등
-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도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맥을 같이함.
-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간 점은 무역정책과 함께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노선을 들고 나온 사실

## 〈중국의 대응〉

-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 내의 다양한 사회세력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반영하면서 형성.
-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중국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매우 폭넓은 논쟁이 벌어짐. 이 논쟁에는 국제관계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관료, 기업인, 금융인 (특히 애널리스트) 등도 참여
- 논쟁은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 처음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실제로 무역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 이어서 미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역분쟁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
-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나 이른바 디커플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

- 먼저 미중 무역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것인가를 두고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사이의 논쟁**
- 낙관론자들은 미중 경제 관계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거기에서 두 나라가 얻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이 쉽게 무역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
- 비관론자들은 주로 트럼프의 대선 정책 공약 분석을 통해 앞으로 자유무역 질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결론
- 이어서 미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조갈등론, 제도갈등론, 국내 문제 수출론자들 사이의 논쟁**
- 구조갈등론자들은 미중 무역 마찰이 단순한 시장 쟁탈전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을 반영한다고 간주. 상대적인 국력의 변화가 기존의 강대국과 떠오르는 강대국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

- 제도갈등론(또는 모델갈등론)자들은 미중 갈등의 원인을 발전 모델들 사이의 경쟁에서 찾음. 이들은 미중 갈등의 배경으로 정부주도 발전 모델과 시장주도 발전 모델의 분기를 꼽음.
- 제도갈등론의 특징은 미중 경제 관계를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다는 사실. 제도갈등론에서는 제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의 시장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국내 문제 수출론자들은 미중 갈등의 원인이 미국 계급 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생기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에 있다고 간주(전통적인 마르크스 주의자). 미국은 미중 경제, 교역관계의 확대에 많은 이익을 얻음. 그러나 그이익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업자에게 돌아갔고 보통의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음.
- 이러한 분배의 불평등은 미국 내의 계급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함. 미국 안에서 생긴 갈등을 바깥으로 수출하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성이 미중 갈등으로 나타났다는 것

- 무역 전쟁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방향을 두고는 거국체제파(whole nation system school)와 시장개혁파의 의견 대립
- 거국체제파는 중국이 미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 이들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일본 사례를 들면서 중국이 약하게 대응하면 일본 꼴이 날 것이라고 설명. 기술과 관련해서 이들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더라도 기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간주
- 시장개혁파는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맞대응 조치를 비판. 이들은 시장경제와 개방을 향한 중국의 더 강력한 개혁이 미중 대결의 해결책이라고 주장
- 이들은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이 문을 닫고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미국 등 외부와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



- 미중 갈등을 두고 중국에서 펼쳐진 논쟁은 경제 발전에서 정부주도를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시장주도를 앞세울 것인가,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 상호 의존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와 같은 전통적인 논쟁에 맥락이 닿아 있음.
- 중국 정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는 형태로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중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중국은 시장개혁파의 논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미국이 강하게 나올 때는 중국도 그에 대해 맞대응을 마다하지 않는 점에서는 중국의 정책이 거국체제파의 논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임.
- 이는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음을 보여줌.

### 3. 세계 경제질서에 끼칠 영향

#### <교역관계의 변화: 보호주의 강화>

- 미중 경제관계의 균열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날 지는 열려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역관계에서 그동안 자유주의를 강조해 오던 흐름이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바뀔 것이라는 점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전면적인 보호주의의 강화로 이어진다면 세계경제는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 실질 교역이 12~19% 감소할 것으로 추산. 최종재보다 중간재의 교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규모가 19~25%에 이를 전망.
- 교역의 축소와 나란히 세계 총생산(GDP)도 0.9~5.3%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물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정책들이 미국이 의도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분명. 또한 미국이 국내 산업의 이해 관계를 무시하고 보호주의를 일방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 오히려 여러 자료들은 미국의 중국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미국의 대중 규제가 중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미국 제조업에는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 존재
- 무엇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 미중 무역위원회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부의 수익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미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국 사업부의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
- 2022년에 조사에서 설문대상 기업의 89%는 수익성 전망에 대해 낙관

## <화폐금융 질서의 변화>

- 1990년대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제조 상품의 국제 가격이 장기간 안정되는 국면이 나타남. 낮은 인플레이션은 여러 중앙은행들의 화폐정책 수행에 여유 제공.
-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산 가격의 상승에 목표를 두는 정책을 펴; 물가안정 목표제, 상품 가격의 안정이 금융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슈워츠 가설**, 거품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는 **그린스펀 독트린**, 손실의 사회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 **최후의 마켓 메이커** 논리에 따른 양적 완화
- 무엇보다 중국이 세계시장과 연계를 맺으면서 생산해내는 잉여가치는 금융이 팽창할 수 있는 근본 조건
- 그런데 미중 갈등은 이러한 조건에 변화를 만들어냄.

## 〈브릭스(BRICS)의 성장과 달러 패권 약화〉

-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직된 브릭스(BRICS)가 주목의 대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대립을 계기로 달러를 대체할 세력으로 브릭스(BRICS)가 관심
- 브릭스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이유; 대외 무역이나 경제 발전과 관련한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세계경제 전반에 걸친 지정학적 긴장 유발, 달러의 핵심 역할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다른 나라 금융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
- 한편 브릭스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여러 취약성을 갖는다는 의견; 브릭스 국가들 사이의 동질성이 낮다는 점, 국제무역에서는 여전히 브릭스에서 중심 국가로 가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G7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브릭스 국가들보다 기술 수준은 5배,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

## IV. 미중 관계 이데올로기들과 소결

### 1. 미중 관계 이데올로기들

- 구조적 갈등론은 미국 주류의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를 단일의 지향을 갖는 인격체로 상정하고 갈등 관계를 설명
-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공격적 현실주의론, 패권 전이론에 바탕을 둔 투키디데스 함정론, 신냉전론 등은 구조적 갈등론의 범주
- 구조적 갈등론의 특징은 중국의 성장을 매우 과장한다는 점, 중국이 계속 호전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 미중 관계의 파국이 임박한 것처럼 설명한다는 점
-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국에 대비한 중국의 경제 규모가 2014년에는 100%, 2023년에는 150%, 그리고 2040년에는 거의 300%(세배)가 될 것이라고 과장

- 엘리슨은 미중 갈등이 결국 파국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음. 그는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음이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 마이클 허드슨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의 본질이 과두정치를 가질 것인지 민주정치(경제)를 가질 것인지를 대립에 있다고 간주. 이는 떠오르는 세력과 기존 강대국의 대립을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엘리슨의 설명과는 사뭇 다름.
- 마이클 허드슨은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 그레이엄 엘리슨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스파르타와 유사하다고 설명; 불로소득 금융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과두정치, 필수적인 생산품의 외국 의존, 군사력을 통한 다른 나라 지배, 자립과 국내번영을 구축하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억압, 민주적 토지 개혁가와 친노동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독재자의 지원, 가계부채와 긴축으로 고생하는 미국의 일반 대중의 모습

-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나 지식인 집단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담론의 함정 (discourse trap)**으로 보면서 그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 그들은 투키디데스 함정론이 미국의 주류 이론가들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근거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설명
- 곧,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은 담론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2015년 9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세계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함.
- 미중 대립을 설명하는 제도갈등론은 미중 갈등을 국가주도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사이의 제도 차이 설명.
- 제도갈등론의 대중적인 버전은 미중 갈등의 원인을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로 설명. 이러한 설명은 **가치 동맹**이라는 정치적 구호로 연결



## 2. 소결

- 이 글은 이윤율로 표시되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자본에 경쟁 관계를 바탕으로 미중 갈등을 설명
- 미중 갈등이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중 갈등을 주류의 지배적인 관점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함,